

## 조선민주청년동맹의 결성 배경 연구 소련의 영향을 중심으로

곽채원(북한대학원대학교)

이 연구는 소련의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의 체제 형성 초기 조직되었던 사회주의 청년단체인 ‘조선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의 결성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1920년대로부터 소련은 코민테른을 통해 각국 공산당 및 조선의 공산주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레닌 집권 시기 코민테른의 공산주의청년동맹 정책은 젊은 세대에 대한 공산주의 사상 교양과 공산주의 청년동맹의 조직을 당의 예비군 및 조력자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산주의청년동맹은 당이 근로자 대중조직을 인입하는 데 조력하는 조직으로 기능했다. 국내에 단일한 공산당 결성 시도가 지속적으로 실패하던 상태에서 공산주의 청년활동은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세계 사회주의화라는 코민테른의 기조는 레닌 사후 소련 수호 우선시 정책으로 변화했다. 특히 1935년 개최된 코민테른 제7차 대회는 파시즘에 대항한 광범한 반파시즘 인민전선의 형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반파시즘 투쟁을 목적으로 한 공산주의청년동맹과 사회주의청년동맹의 연합 결성이 제기되었고, 스페인, 라트비아 등에서 청년들의 반파시즘적 연합활동이 전개되었다. 1936년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서기국 회의는, 공산주의청년인터내셔널의 임무를 ‘공산주의적 청년조직을 근로청년의 광범한 대중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반파시즘적 대중단체를 표방한 코민테른의 청년동맹 정책은 1930년대 이후 입국한 일부 소련 공산대학 출신 토착 공산주의자들의 협력하에, 해방 이후 소군정과 함께 입북한 김일성의 주도로 실천되었다. 결성 초기부터 공산주의 성향을 드러내었던 소련의 콤소몰과는 달리, 대중성을 표방한 민청은 공산주의 청년활동

가들을 주축으로 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청년층에 개방되었다. 민청의 대중성은 이후 북한의 청년동맹이 모든 청년을 포괄하는 최대 규모의 사회단체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반면, 당과 민청의 직접적 지도 관계가 공식화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주제어: 북한, 청년동맹, 조선민주청년동맹,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청년활동, 코민테른, 소련

## 1. 서론

남북한 정치 체제 형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 정치사적 맥락에서 한반도의 근대 국가 수립이라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출현과 국제 진영의 재편, 두 차례의 세계전쟁 등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격동의 국제 정치를 경험한 지역 연구 사례로서 가치가 있다. 실제로 남북한은 60년 이상 정전인 상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정치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국내 정치사적, 국제 정치사적 맥락에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체제 형성에 대한 연구는 경시되거나,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북한 체제 형성에 관하여서는, 국내 공산주의 활동 중심의 연구, 일제하에서의 독립운동과 민족주의 중심의 연구, 김일성 등 지도자의 경험과 활동 중심의 연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가 한반도 근대 정치사를 꿰어가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온 것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의 편향성은 한반도 근대 정치사의 시각과 대상을 확장하지 못했던 한계가 되었다. 특히 공산주의 진영의 중심축이었던 소련의 영향은 국제 정치사적 맥락에서 북한 체제 형성 배경과 과

정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깊게 다뤄지지 못했다.

한편 10월 혁명 과정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당의 전위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청년층’이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의 대표적인 사회조직으로서 소련의 청년단체인 ‘콤소몰’은<sup>1)</sup>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대중 조직으로서, 소련공산당의 적극적인 보조자·예비군으로 규정되었다. 청년의 혁명성과, 다음 세대로서 공산주의의 계승자라는 점에 주목했던 레닌(Lenin)은 콤소몰 제3차 대회에서 이들의 주된 임무를 노동자·농민 청년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으로 규정했다.<sup>2)</sup> 공산당과 콤소몰의 관계는 스탈린(Stalin) 시기에 강화되었다. 스탈린은 콤소몰을 당과 청년층을 연결하는 ‘전도체’로서 당의 후비이며 대중에게 영향을 주고 사회주의 정신에서 젊은 세대들을 교양하는 당의 방조자로 규정하고, 콤소몰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조했다.<sup>3)</sup> 콤소몰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전위대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소련의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의 체제 형성 초기 조직되었던 사회주의 청년단체인 ‘조선민주청

- 
- 1) 소련공산주의청년동맹(All-Union Lennist Communist League of Youth), 러시아어로 콤소몰(Komsomol: Kommunistichenskii soiuz molodezhi의 약칭)이라 불린다. 결성 이후 수차례 공식 명칭이 바뀌었으며 본문에서는 ‘콤소몰’의 명칭을 주로 사용했다.
  - 2) 브.이.레닌, “청년 동맹의 제 과업: 제3차 전로 로씨야 공산 청년 동맹 대회에서 진술한 연설(1920년 10월 2일),” 『청년에 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289~308쪽.
  - 3) 쓰뽀 류비모브, “브.이.레닌의 공청 제3차대회에서 진술한 “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청년생활사, 『레닌-쓰딸린적 공청』(평양: 북조선민청중앙위원회 출판사, 1950.4), 86쪽.

년동맹(이하 민청)<sup>4)</sup>의 결성 배경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연구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 형성 초기의 역사적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의 대상 시기를 국내에 공산주의 활동이 전개되었던 1920년대로 확장했다. 1920년대 초부터 해외 망명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국내에 파급되었던 공산주의는 일제의 탄압과, 독립에 대한 민족주의와의 갈등과 모순, 이론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이해 부족,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레닌의 사망과 스탈린의 집권 과정에서 소련의 국제 공산주의 정책 변화로 인해 잦은 부침을 겪었다. 25년 가까운 공산주의 역사에도 해방 시점에 국내에 당 조직이 없었던 사실은 그간의 혼란상을 입증한다. 이러한 역사적 접근은, 한반도 근대 정치사 연구의 시각과 대상을 확장한다는 것과 함께, 북한의 국가 성격을 둘러싼 오랜 방법론적 쟁점이었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균형을 찾는다는 데도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체제<sup>5)</sup> 일반에 근거한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이 함께 전제되어야만 북한 체제 연구의 설득력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6)</sup>

---

4) 해방 이후 대중성을 표방하며 조직되었던 북한의 사회주의 청년단체이다. 결성 당시인 1946년 1월에는 ‘북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불리다가, 1951년 남북 민청이 통합된 이후 ‘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남북한 민청이 통합되기 전까지는 ‘북조선민주청년동맹’ 혹은 ‘북조선민청’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으나 본문에서는 혼란을 피하고자 ‘조선민주청년동맹’(민청)으로 통일해 사용하였다. 북한에서 남북한 민청 통합 이전에 이미 ‘조선민주청년동맹’의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5) ‘사회주의 체제’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어왔다. 본문에서는 포괄적으로 레닌과 스탈린 시기에 형성된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를 의미한다. ‘사회주의 체제’와 전이과정을 개념화한 코르나이(János Kornai)는 북한을 쿠바와 함께 ‘아직 살아남은 전통적 사회주의 체제’로 설명했다. Já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19~21.

6)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북한연구방법론』(서울:

## 2. 사회주의 국가 청년조직의 원형

### : 소련 ‘콤소몰’의 초기 성격

사회주의 국가에는 노동조합이나 청년동맹 등 다양한 사회조직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당의 지도하에 국가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조직은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요소가 된다.<sup>7)</sup> 당과 사회조직 간의 관계는 이원적으로 작동되는데, 사회조직들은 공식적으로 자율성을 가지며, 간부들은 규약에 따라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그러나 실제로 당 기관의 간부들과 사회조직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조직의 주요 기능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각 사회조직이 대표하는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인전대(transmission belts)’<sup>8)</sup>의 역할이며, 따라서 당 기관의 간부들은 사회조직들과 활발하고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sup>9)</sup>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조직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역할 중 많은 부분은 청년조직이 담당한다.<sup>10)</sup> 청년조직은 사상교양, 국가방위, 노동력 동원 등 당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청년조직으로서 콤소몰의 결성에는 레닌의

---

한울, 2003), 27~45쪽.

7) 소련과학아카데미, 『현대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전』, 강종수 옮김(서울: 백산서당, 1989), 217~219쪽.

8) 레닌은 1920년 노동조합의 성격을 재규정하면서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의 개념을 언급했다. V. Lenin, “The Trade Union, the Present Situation and Trotsky’s Mistakes(December 30, 1920),” *Lenin: Collected Works* 32(London: Progress Pub., 1981), pp.20~21.

9) Já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40.

10) 소련과학아카데미, 『현대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전』, 217~219쪽.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그는 청년의 혁명성과, 공산주의 사회를 계승한다는 점에 주목, 혁명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과정에서 청년조직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레닌 시기 사상교양의 임무와 후비대로서의 성격, 그리고 당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후 스탈린 시기 당과 콥소몰의 관계, 그리고 콥소몰의 역할이 강화되어 정치적·경제적·문화적·교육적 측면에서 당의 청년정책과 사회주의 건설정책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다.

소련의 공산주의 청년조직은 1917년 8월 러시아사회민주당(볼셰비키) 제6차 당대회에서 ‘당의 사상적 지도하에 사업하는 독자적인 단체’로서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방향에서 프롤레타리아 청년들의 계급적 자각성을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최초로 규정되었다.<sup>11)</sup> 1918년 7월 당 중앙회는 ‘노동자-농민 청년동맹(Workers and Peasant Youth)’의 ‘제1차 전러시아대회(First All-Russian Congress)’ 소집을 위한 ‘조직국(Organizational bureau)’을 결성했다. 당시 당의 목적은 러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주의화였으므로,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에 대한 의무는 모든 청년조직 내에서 공유되었다. 따라서 러시아 청년조직들이 통합되어야만 국제공산청년동맹(Communist International)이 성공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sup>12)</sup>

1918년 10월 29일 모스크바에서 소집된 제1차 ‘전러시아노동자농민청년동맹 대회(All Russia Congress of the Workers’ and Peasants’ Youth League)’는 콥소몰의 기원이 되었다. 대회에서 산발적으로 조직되었던

---

11) 느.아.미하이로브, “전련맹 공산당(볼셰위끼)은 공청의 조직자이며 지도자이다,” 『레닌-스탈린적 공청』(평양: 북조선민청중앙위원회 출판사, 1950), 1~38쪽.

12) Matthias Neumann, *The Communist Youth Leagu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Soviet Union, 1917~1932*(Abingdon, Oxon: Routledge, 2011), pp.34~35.

노동자·농민 청년단체들을 하나로 통일하고, 청년들을 단일한 청년단체에 인입하고, 국가방위에 적극적으로 동원할 것이 동맹의 사업으로 제기되었다. 조직의 명칭은 ‘러시아공산청년동맹(RYCL: Russian Young Communist League)’으로 결정되었다.<sup>13)</sup> 당시 청년단체의 명칭에 ‘공산주의’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강압으로 인해 공산당이 대중적 인기를 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중론자들은 청년단체의 명칭에 당성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청년동맹 회원들이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문화·교육적 위주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4)</sup> 그러나 당이 정책을 강제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산주의’ 명칭은 당명 개칭과 함께 제1차 콥소몰 대회에서 채택되었다. 대회는 청년들에게 공산주의를 전파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사업에 청년들을 참여시키고, 새로운 계급문화를 선전할 것을 콥소몰의 목표로 결정했다. 또한 정신과 육체교양의 상호관계를 통한 새로운 인간형을 양성할 것을 강조했다. 콥소몰 제1차 대회에서는 전국 수준에서의 ‘중앙집권화(centralization)’와 ‘관료화(bureaucratization)’ 여부, 조직의 성격을 대중화할 것인지, 청년 당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배타적 조직으로 할 것인지 등이 논의되었다.<sup>15)</sup>

1918~1920년 내전 기간에 제도적 수준, 그리고 지역적·정치적·사회적 환경에 맞춰 당과 콥소몰의 관계가 조정되는 등 콥소몰의 기본

13) 느.아.미하이로브, “전련맹 공산당(불체위끼)은 공청의 조직자이며 지도자이다,” 1~38쪽.

14) 김수희, “소련 청소년단체의 정치사회화: 콥소몰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Vol. 14, No. 1(1990), 125~149쪽.

15) Matthias Neumann, *The Communist Youth Leagu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Soviet Union, 1917~1932*, pp.36~37.

골격이 형성되었다. 내전 기간에 전업 관료들이 부족해짐에 따라 당은 대중조직들을 통제하고 활용하게 되었으며, 당시 콥소몰은 정권기관들과 노동조합, 소비에트, 군대 등 다양한 대중조직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sup>16)</sup> 1919년 3월 제8차 러시아공산당대회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열성적이고 자각적인 노동자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잘 훈련된 저수지(reservoir)’를 준비할 것을 결정, 특히 이 임무는 콥소몰과 같은 열성적인 자발성을 가진 청년조직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중조직들에 대한 당의 영향력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8차 대회에서 당은 간부정책을 강화하고 당과 콥소몰의 관계를 재규정했다.<sup>17)</sup> 1919년 콥소몰 중앙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는 콥소몰 중앙위원회가 당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것을 결정했다. 즉, 콥소몰은 ‘완전히 독립적이지(fully-independent)’ 않으며, 콥소몰의 사업은 ‘자립적(fully self-standing)이지’ 않은, ‘자율적(autonomous)’인 것으로 표현되었다. 당은 한편으로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전위성(avant-gardism)을 지원하면서도, 콥소몰의 지속성을 위해 청년의 의미를 제한했다.<sup>18)</sup>

1920년 10월, 전쟁과 경제적 혼란의 상황에서 개최된 콥소몰 제3차 대회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새롭게 제기된 당의 정책에 따라 콥소몰에게 ‘당의 정책을 근로자들에게 선전하고 당정책에 근로자들을 동원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대회에서 레닌은 콥소몰이 공산주의 사회의 첫 번째 건설자로서 노동자 및 농민 청년 대중 전체를 인입해야만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sup>19)</sup>

---

16) *ibid.*, p.57, pp.68~69.

17) *ibid.*, pp.70~71.

18) *ibid.*, pp.70~72.

19) 브.이.레닌, “청년 동맹의 제 과업 제3차 전로 로씨야 공산 청년 동맹 대회에서



레닌 사후 개최된 1924년 제6차 콤포몰 대회는 콤포몰의 공식 명칭에 ‘레닌주의(Lenist)’라는 용어를 채택, ‘당의 모든 사업에 방조하며 자기의 창발력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는 레닌의 연설을 유언으로 접수했다.<sup>20)</sup> 1924년 5월 개최된 제13차 당대회는 콤포몰의 임무와 활동에 대해 규정, “동맹에 당의 핵심을 강화하고 그의 열성적 일군과 간부를 당생활에 인입하는 것을 당면된 기본과업”으로 하며 노동청년들을 적극적으로 가입시킬 것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sup>21)</sup> 1925년 제14차 당대회는 당내 갈등 끝에,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통한 사회주의적 경제건설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스탈린이 제기한 대로 사회주의 공업화의 방향을 확정짓고, 당규약을 개정, 당의 명칭을 ‘러시아공산당’에서 ‘소련공산당’으로 개칭했다.<sup>22)</sup> 이후 스탈린은 ‘레닌주의 제 문제에 대하여(On the Problems of Leninism)’에서 콤포몰의 ‘인전대’로서의<sup>23)</sup> 개념을 구체화했다. 스탈린은 과도기에서의 프롤레타리아독재 체제를 설명하면서 “생산방면에서 당과 계급을 연결시키는 노동계급의 대중조직으로서 노동조합, 국가 방면에서 당과 근로자들을 연결시키는 대중조직으로서 소비에트, 농민을 사회주

---

진술한 연설, 1920년 10월 2일,” 296~297쪽.

20) 아.야.부라진, “공청은-사회주의건설에서의 볼셰위끼당의 원조자이다,” 『레닌-쓰딸린적공청』(평양: 청년생활사, 1950.4), 151쪽.

21) 위의 글, 152쪽.

22) 『소聯共産黨 歷史 簡略讀本』(평양: 북조선노동당출판사, 1948), 474~475, 482쪽.

23) ‘인전대(transmission belt)’의 개념은 1920년 레닌의 연설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system of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에서 노동조합은 당과 정부(government) 사이에 위치하며, 노동조합은 국가조직이 아닌 학교(school), 즉 행정과 경제관리와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로 규정했다. V. Lenin, “The Trade Union, The Present Situation and Trotsky’s Mistakes (December 30, 1920),” pp.19~42.

의 건설에로 끌어들이는 방면에서 당과 농민 대중을 연결시키는 협동 조합, 노동계급의 전위대가 새 세대를 사회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젊은 후비를 양성하는 것을 쉽게 하여 줄 사명을 가진 노농청년의 대중 조직으로서의 콤포몰, 마지막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내에서 이 모든 대중 조직들을 지도할 사명을 가진 기본적인 향도적 역량으로서 당”이 대체로 ‘독재 기구의 전모’라고 규정했다. 그는 노동조합과 소비에트, 협동조합을 ‘당밖에 있는 조직’으로 규정한 반면, 콤포몰은 ‘노농청년들의 대중단체’로서, ‘당밖에 있지만 당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조직’으로 규정했다.<sup>24)</sup>

집단화를 위한 대회였던 제15차 당대회 개최 반 년 이후 열린 1928년 5월 콤포몰 제8차 대회에서 전쟁에서의 공훈에 대해 콤포몰에 적기훈장이 표창되었고, 1926~1928년에 콤포몰이 트로츠키 (Leon Trotsky) 반대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였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마지막 날 연설에서 스탈린은 콤포몰을 ‘당의 방조자이며 후비’로 규정했다.<sup>25)</sup> ‘승리자의 대회(The Congress of Victors)’로 불리었던 1934년 제 17차 당대회 이후 콤포몰에 대한 당의 강력한 통제가 제도화되었으며 1936년 콤포몰 제10차 대회는 콤포몰을 ‘전체 청년들에게 복무하는 당의 인전대’로 규정, 콤포몰의 성격에 대한 그간의 논쟁을 종료하는 계기가 되었다.<sup>26)</sup> 1938년 제18차 당대회는 당의 현장을 채택, 콤포몰

24) 스탈린, “레닌주의의 제 문제에 대하여(발췌): 전련맹 공산당(불쉐위크) 레닌그라드 단체에 드림,” 『맑스 앵겔스 레닌 스탈린 노동계급의 당』(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5), 611~615쪽.

25) Ralph Talcott Fisher, Jr., *Pattern for Soviet Youth: A Study of the Congress of the KOMSOMOL: 1918~1954*(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pp.142~143; 쓰.이.무라쑨브, “전련맹 레닌공산청년동맹 제8차대회에서의 이.브.스탈린의 연설에 대하여,” 『레닌-스탈린적공청』(평양: 청년생활사, 1950.4), 94쪽.

26) Juliane Furst, *Stalin's Last Generation: Soviet Post-War Youth and the Emergence of*

이 “당의 지도하에 자기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콤포소물 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에 종속되는 콤포소물의 지도기관으로 규정되었다.<sup>27)</sup>

### 3. 레닌 집권 시기 소련의 영향

#### 1) 초기 코민테른의 공산주의청년동맹 정책

국제 공산주의 활동이 소련의 주도로 진행되었던 1920년대 이후 소련의 영향은 유럽 지역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공산주의자들에게 지대하게 미쳤다. 1919년 2월 국제공산주의자대회에서 ‘인터내셔널의 모습을 취하고 그 이름을 코민테른[Comintern, Third (Communist) International]’으로<sup>28)</sup> 할 것을 결정한 이후 코민테른의 주도적 역할은 레닌이 담당했다. 1920년 7~8월 사이 개최되었던 코민테른 제2차 대회에서는 식민지와 민족문제가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레닌은 결론에서 후진국은 선진국 프롤레타리아의 지원하에 자

---

*mature Socialism*(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11~12.

27) 느.아.미하이로브, “전련맹 공산당(불쉐위끼)은 공청의 조직자이며 지도자이다,” 13쪽.

28) 코민테른(Comintern, Communist International)의 약칭, 혹은 제3인터내셔널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제2인터내셔널이 와해된 후, 레닌의 지도하에 1919년 모스크바에서 창립되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각국의 공산당에 그 지부를 두고 각국 혁명운동을 지도·지원했다. 사실상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 지도되었으며 1943년 해체되었다. 한국근현대사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19949&cid=42958&categoryId=42958>, 검색일: 2015년 5월 10일).

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이는 이후 코민테른이 각국의 공산당 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근거가 되었다.<sup>29)</sup> 코민테른 제2차 대회에서는 규약을 통해 소속해 있는 모든 당과 조직에서 선발된 대의원들의 세계대회가 코민테른의 최고기관이며, 세계대회는 매년 개최되어 코민테른의 강령을 변경하고 중요한 전략 및 전술문제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었다. 집행위원의 구성은, 집행위원회에 참가한 나라의 공산당이 결의권을 가진 대표 5명을 선출하고, 바로 전 회의 대회에 10명 내지 13명의 대의원을 파견한 공산당이 결의권을 가진 대표 각 1명씩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특히 대의원을 파견한 공산당 구성에는 공산주의청년 인터내셔널 및 노동조합 조직도 포함되었다.<sup>30)</sup>

1921년 6월 개최된 코민테른 제3차 대회에는 48개국의 공산당 및 28개의 청년동맹 및 기타 조직들이 참가했으며, 노조와 여성, 청년에 대한 공산주의 조직 활동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대회에서 채택된 협동조합 및 여성 및 청년 속에서의 공산주의 활동에 대한 결정에서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점차 다양한 근로자 대중조직을 적극적으로 인입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공산주의청년 인터내셔널과 각국 공산주의청년동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젊은 세대를 공산주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공산주의청년동맹의 조직을 공산당의 예비군 및 조력자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sup>31)</sup>

1922년 11월 개최된 코민테른 제4차 대회는 통일전선전술에서 한 단계 나아가 노동자정부 건설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부르조

---

29) 소련과학아카데미, 『현대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진』, 313~315쪽.

30) 김성윤, 『코민테른과 세계혁명 I』(서울: 거름, 1986), 113~114쪽.

31) 위의 책, 140~159쪽.

아 권력과 투쟁하며 최후에는 그것을 타도하기 위해 경제 및 정치 분야에서 결속한 모든 근로자의 통일전선, 모든 노동자당의 연합'으로 간주했다. 또한 민족·식민지문제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시켜 반제통일 전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는 맹아 상태의 동아시아 식민지·반식민지 국가의 공산당은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모색해야 하며,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통해서만 '혁명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노동자계급이 경제적·정치적으로 조직되어야만 '투쟁의 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중 속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 노동조합, 협동조합, 여성 및 청년단체내에서의 공산주의 활동이 분석되었다.<sup>32)</sup>

## 2) 코민테른과 조선 공산주의 청년 활동의 연계

코민테른이 상해에 원동국을 설치한 이후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코민테른의 영향은 강화되었다. 한인사회당의 간부였던 박진순이<sup>33)</sup> 코민테른 제2차 대회(1920년 7월)에 고려공산당 대표자격으로 참가하

32) 위의 책, 183~199쪽.

33) 朴鎭順, 1897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출생, 1920년 7월 코민테른 제2차 대회에 한인사회당 대표로 참석해 민족·식민지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코민테른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대회 후 한인사회당을 공산당으로 개조하기 위해 극동으로 귀환했다. 1921년 5월 상해에서 개최된 고려공산당 창립대회에 참석, 중앙위원 겸 코민테른 파견대표단의 일원으로 선임되어 모스크바에 도착, 레닌과 회견하기도 했다. 1922~1925년 모스크바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1925년 봄 졸업 후 간도에서 오르그부로(고려공산당 창립대회준비위원회) 활동에 관여했다. 이후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1927~1928년 아카데미철학연구소에서 수학, 동시에 모스크바 고등교육기관들에서 철학과 레닌주의를 강의했다. 1929년 간도에서 조공재건설준비위원회 기관지 편집에 참여했다. 강만길·성대경,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서울: 창작과비평사, 1996), 209~210쪽.

는 등, 초기부터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코민테른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자 노력했다.<sup>34)</sup> 공산주의가 조선 내에 유입된 것은 1921년 무렵이었다. 당시 진보적 성향을 가졌던 그룹들에 의해 청년활동이 전개되었으나 이들은 순수 공산주의 활동가들은 아니었다. 한편 1921년 5월 상해를 근거지로 조직된 고려공산당의 청년조직으로서 결성된 고려공산청년회(고려공청)는 박헌영 등 이후 조선의 공산주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인물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본문에서는,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총국의 책임비서였던 박헌영과<sup>35)</sup> 코민테른 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코민테른 초기 조선의 공산주의 청년 활동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sup>36)</sup>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민족대회<sup>37)</sup>에 참석한 144명의 공식대표 중 3분의 1을 넘는 52명이 조선인들이었다. 이들 중 35세 이하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투표권을 지닌 조선인 48명의 대표단 중

34) 스킨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한홍구 옮김(서울: 돌베개, 1986), 49~54쪽.

35) 박헌영을 포함한 활동가들은 고려공산청년회의 창설멤버인 동시에, 고려공산당 당원으로 활동했다.

36) 고려공청은 화요회에 속한 조직이었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그룹을 대표해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공청이 이 시기 공산주의 청년활동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고려공청 지도간부들이 이후 국내 공산주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 이 조직과 코민테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후 국내 공산당 결성을 위한 부단한 시도가 있었고 다른 배경을 가진 공산주의 그룹들 간의 치열한 갈등이 존재했다. 이 과정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37)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가 주최한 동아시아 각국 공산당 및 민족혁명단체 대표자들의 연석회의이다. 정식 명칭은 ‘극동민족대회’, ‘극동근로자대회’, 혹은 ‘제1회 극동공산주의단체 및 혁명단체대회’ 등으로 불리었다. 이정박헌영전집편집위원회, 『이정박헌영 전집 제1권 일제시기 저작편』(서울: 역사비평사, 2004)

37명이 공산당원임을, 5명이 공산청년동맹원이라고 스스로 밝혔다.<sup>38)</sup> 박헌영은 화동한국학생연합회 임시회장의 자격으로 정광호와 김상덕을 극동민족대회와 극동청년대회에<sup>39)</sup> 참가하는 위임장을 작성했다.<sup>40)</sup> 회의에는 청년공산주의자를 대표해 박헌영, 김단야, 김규 등이, 조선청년연합회에서 김영진 등이 참석했다.<sup>41)</sup>

고려공청은 상해에 근거하면서, 코민테른 및 국제공산청년동맹 집행위원회와의 협의하에 기관지 『신흥청년』을 발간하고, 해외 및 국내 공산주의 청년 조직활동을 시도했다. 1924년 고려공청 중앙총국 책임비서 박헌영과 박철환의 명의로 국제공산청년동맹 집행위원회에 보내는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 지역의 대구, 마산, 진주, 부산 등과 북한 지역의 함흥, 신의주, 평양, 황주, 해주 등에서 청년조직 세포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기 조선 내에서 공산주의청년조직의 창립대회 소집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코민테른이 ‘조선에 바람직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조직체만을 특별히 지원’해야 하며 단일 조선공산당 창설을 그 조직체에 위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단일한 공산당이 결성되지 않을 경우, 당의 청년운동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sup>42)</sup>

38) 스칼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78쪽.

39) 극동청년대회는 극동민족대회의 자매회의로서, 1922년 1월 모스크바 국제공산청년회 주최로 개최된 동아시아 각국 청년단체 대표자들의 연석회의이다. 이정박헌영전집편집위원회, 『이정박헌영 전집 제1권 일제시기 저작편』, 39쪽.

40) 위임장 제1호(1921.10.22); 위임장 제2호(1921.10.22); 이정박헌영전집편집위원회, 『이정박헌영 전집 제1권 일제시기 저작편』, 40~41쪽에서 재인용. 서대숙은 정광호를 학생대표로, 김상덕을 이르크츠크파의 대표로 구분했다. 서대숙,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현대사연구회 옮김(서울: 이론과 실천, 1985), 48쪽.

41) 서대숙,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48쪽.

한편 1925년 박헌영이 고려공청 중앙위원회 책임비서의 자격으로 국제공산청년동맹에 청구한 사업비 내역을 통해, 조선 내 도·군(합법) 청년연맹 결성 준비와 조선의 정치·경제적 통계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공청이 활동비 중 많은 부분을 국제공청에 의존하고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sup>43)</sup> 또한, 소련의 동방공산대학 입학생 선발을 고려공산청년회 집행위원회에 일임, 1925년 10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 21명의 학생이, 제2차 조선공산당 시기에 5명의 학생이, 제3차 조선공산당 시기에 3명이 더 파견되었다.<sup>44)</sup>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정치서기국은 제6차 대회 이후 1928년 12월 ‘조선문제에 대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결의’(이하 ‘12월테제’)를 채

- 
- 42) ‘국제공산청년동맹의 집행위원회에 보내는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총국 보고서,’ 이정박헌영전집편집위원회, 『이정박헌영 전집 제1권 일제시기 저작편』, 51~61쪽에서 재인용.
- 43) 당시 고려공청은 조선 내 조선청년총연맹 결성한다는 청총 개혁정책으로 서울과 지방을 돌며 정세대결을 맞고 있었다. ‘청구서’(박헌영, 1925.9.18), 이정박헌영전집편집위원회, 『이정박헌영 전집 제1권 일제시기 저작편』, 82~84쪽에서 재인용.
- 44) 서대숙,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103~104쪽. 공산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당 추천을 받거나, 해당 국가에 공산당이 없을 경우 유력한 공산주의자의 추천과 코민테른의 심사를 거쳐야 했다. 조선공산당이 해산된 이후에도 유력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1930년대 중반까지 유학생이 파견되었다. 코민테른은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졸업생들에게 현장 실습을 통해 신원 및 특징을 학교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기초로 각자에게 사명을 부여했다. 지역선정·조직 대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사명이 부여되었던 것은 코민테른이 전국적으로 졸업자들을 파견했음을 유추하게 한다. 코민테른과 졸업자들 간의 중간 연락을 담당했던 기관은 연해주 소재 코민테른 동양연락부였다. 이들의 활동은 노동자가 집결되어 있는 대공업중심지에 치중했으며 1930년대 활발히 이루어진 적색노동조합운동은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기인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의 활동은 코민테른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이루어졌는데, 조직 활동 상황을 코민테른에 수시로 보고했다. 우동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코민테른,”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서울: 한길사, 1992), 576~595쪽.



택했다.<sup>45)</sup> 테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새로운 방향성과 진로로서 토지문제와 민족혁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일과, 토지문제를 하층계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인테리 위주의 당을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하는 새로운 구성으로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대중을 인입할 수 있는 훈련된 프롤레타리아 지도권의 강력한 핵심을 형성할 것을 제기했다. 즉, 현 단계에서 조선공산당이 추구해야 하는 노선은, 한편으로는 노동자와 농민을 참가시켜 공산주의자의 전열을 강화하여 당내 파벌주의를 완화시키고, 한편으로는 민족개량주의자와의 투쟁에서 민족혁명운동을 강화시키는 내용이었다.<sup>46)</sup>

‘12월테제’는 산발적인 루트를 통해 국내에 전해졌다. 비록 이 시기 국내에는 테제를 이행할 만한 당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모스크바에서 직접 파견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주로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출신)과 직간접적으로 코민테른의 지침을 지도받은 공산주의자들은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제한적으로나마 지역, 계층, 산업별 영역에서 활동을 벌였다. 1935년 제7차 대회에서 새로운 강령이 채택되기 전까지 ‘12월테제’는 해외 및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sup>47)</sup> 소련이 국내에 파견한 공작원들은 코민테른과 프로판테른의 직

45) 김인덕, “조선공산당의 투쟁과 해산: 당대회를 중심으로,”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서울: 한길사, 1992), 72쪽.

46) 서대숙,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106~109쪽.

47) 코민테른 제6차 대회에 참석했던 김규열은 만주 돈화에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초당파적’ 회합을 개최, ‘12월테제’의 내용을 전달, 토의했다. 이날 김철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KCPRPA)라는 새로운 조직이 결성되었다. 1929년 7월에는 제1차당 고려공산청년회 집행위원이었던 김단아가 동방공산노력자대학 졸업생 7명과 함께 당건설을 돕기 위해 입국했다. 이들은 부산, 원산, 평양, 함흥, 신의주 등 9개의 지방조직을 설치하고, 노동자,

접적인 지령과 신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성공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일본의 경찰자료는 1930년부터 1935년까지 코민테른과 프로핀테른이 15명의 공작원을 국내에 파견했다고 기술했는데, 이들 공작원의 거의 전원은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출신이었다. 이들 청년의 대부분은 모스크바에 유학하기 전 국내나 만주에서 실제 운동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프로핀테른이 파견한 공작원들의 활동은 도시노동자, 특히 흥남, 함흥, 평양 등 북부에 집중되었다.<sup>48)</sup>

이들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출신 일부는 1932년 2월과 3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울로 잠입, 학교와 공장 및 미조직 공산주의자의 활동의 통합을 시도했다. 이들은 오기섭<sup>49)</sup>과 협력해 함흥에 고려공산청년회 지부를 설립, 함흥, 평남, 경기, 경남의 4개 도와 평양, 함남, 서울, 인천 및 부산의 5개 구로 구분하여 조선공산청년동맹 재건활동을 진행했다. 조선공산당청년동맹 재건의 시도는 함흥, 함주, 흥남, 흥원, 북청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전개되다가 1935년 무렵 관련자들이 대부분 검거되었다.<sup>50)</sup>

---

농민을 지도해 지역과 지구의 공산주의 세포를 설치했다. 서대숙,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115~117쪽.

48) 스킨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259~268쪽.

49) 吳淇燮, 1929년 동방공산노력자대학에 입학했다. 1923년 고향인 함남 흥원에서 농민운동에 참가함으로써 공산주의 활동을 시작했다. 고려공산청년회, 조선공산당에 가입했으며, ‘제2차 조공 검거사건’으로 체포, 1928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출옥 후 흥원에서 노동조합운동에 참여, 1929년 초 원산총파업이 발생하자 총파업후원회를 결성, 위원장이 되었다. 같은 해 4월 일본 경찰의 수배를 피해 소련으로 망명, 10월 동방공산노력자대학 예과생으로 입학했다. 졸업 후 1932년 3월 입국, 부산에서 고무공장 직공을 중심으로 공청 재건활동을 하던 중 체포, 1935년 10월 함흥지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해방 직후 함남에서 조공분국 및 인민위원회 조직 활동을 지도했다. 강만길·성대경,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282쪽; 우동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코민테른,” 580~593쪽.

## 4. 스탈린 집권 시기 소련의 영향

### 1) 코민테른 제7차 대회와 청년정책: 공산주의청년동맹의 대중화

레닌 사후 스탈린이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개최되었던 1928년 코민테른 제6차 대회에서는 국제노동계급운동의 경험 분석, 그리고 코민테른 내에 엄격한 중앙집중제 원칙을 적용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 대회에서 코민테른은 민족 부르주아지와 유기적 관계 유지 방향에서 좌파 중심의 협동전선론으로 혁명 전략을 전환했다. 세계혁명이 선결적 과제였던 코민테른의 기조는 레닌 사후 소련 수호 우선시 정책으로 변화했다. 스탈린은 트로츠키를 포함한 좌우파와의 권력투쟁을 통해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일국사회주의 노선을 주창했다. 이러한 배경하에 제기된 투쟁적 극좌노선이 제6차 대회에 반영된 것이다. 좌파가 중심이 된 협동전선체 결성의 등장은 그간 어렵게 좌우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모색했던 조선의 공산주의 운동가들을 혼란에 빠뜨렸다.<sup>51)</sup>

한편 1935년 7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코민테른 제7차 대회에서 코민테른의 노선은, 반공을 내세우며 ‘반코민테른 동맹’을 형성하던 파시스트 연합에 대항해 계급주의에서 ‘반제국주의’로 변화했다. 소련 공산당은 광범한 ‘반파시즘 인민전선’ 형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출현한 노동자와 중간계급의 연합인 ‘인민전

---

50) 서대숙,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177~185쪽; 국토통일원, 『解放前 政黨·社會團體研究 參考資料: 初期共產主義運動을 中心으로』, 114~118쪽.

51) 김기협 전 교수의 블로그(<http://orunkim.tistory.com/535>, 검색일: 2015년 6월 29일).

선'이 조직되었던 사례들을 검토, 각국 공산당이 농민과 도시 중간계층을 인입하기 위한 전략적 방침을 논의했다.<sup>52)</sup> 당시 파시즘의 권력 장악을 '하나의 부르조아 정부와 다른 부르조아 정부와의 보통의 교체가 아니라, 부르조아지 계급지배의 한 국가 형태인 부르조아민주주의와 또 다른 형태인 공공연한 테러독재와의 대체'로 규정할 정도로 파시즘에 대한 강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sup>53)</sup>

이러한 상황에서 코민테른은 다수의 청년들이 파시즘화된 국가들에서 특히 노동청년들의 반파시즘적 투쟁활동을 강조, '공산주의청년동맹과 사회주의청년동맹의 반파시즘적 연합을 결성할 임무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sup>54)</sup> 코민테른 제7차 대회 이후 개최된 공산주의청년인터내셔널 제6차 대회(1935년 9~10월)에서 반파시즘, 반전투쟁을 위해 공산주의청년동맹의 성격을 근로청년의 대중조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제가 제기되었다. 1936년 3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서기국 회의는, 공산주의청년인터내셔널의 임무를 '공산주의적 청년조직을 근로청년의 광범한 대중조직으로, 비당파적이기는 하나 본질상 혁명적인 조직으로 전화하는 일'로 규정했다. 이는 반파시즘적 청년단체의 통일전선 구축을 신속히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를 위해 공산주의청년동맹의 가입 조건을 완화시키기도 했다. 스페인의 경우 1936년 4월 공산주의청년동맹과 사회주의청년동맹의 연합으로 통일사회주의청년동맹을 결성했으며, 1936년 7월에는 라트비아의 공산주의청년동맹과 사회주의청년동맹이 연합했다.<sup>55)</sup>

---

52) 소련과학아카데미, 『현대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전』, 313~315쪽.

53) 김성운, 『코민테른과 세계혁명 II』(서울: 거름, 1986), 110쪽.

54) 위의 책, 118쪽.

55) 위의 책, 175쪽.

이후 과거 기동적 지도를 수행했던 각 지역별 서기국이 해산되고, 각 당에 파견되었던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전권대표제도가 폐지되면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서기장과 각 서기가 각 당의 파견대표와 협력하는 형태로 코민테른의 기구가 개편되는 등, 초기 각국 공산당의 지도기관으로서 코민테른의 기능은 사실상 변질되었다.<sup>56)</sup> 결국 제7차 대회를 마지막으로, 코민테른은 1943년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해체가 결정되었다.

## 2) ‘조선민주청년동맹’ 결성

코민테른의 1국1당주의 정책으로 상당수의 해외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각국의 지역 당에 소속해 활동하고 있었다. 조선과 접경한 만주 지역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었다. 코민테른의 중국대표는 연락원을 특파, 만주성위원회를 재조직할 것과 그 산하의 청년그룹을 해산하고 새로운 대중적인 인민통일전선을 결성하는 방침을 전달했다.<sup>57)</sup> 만주의 위원회를 통해 전달 받은 제7차 회의의 방침은 만주 지역 중국공산당위원회의 지도로 국내에 파견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과, 국내에서 활동하던 토착공산주의자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파견되어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통해 산발적으로 시도되었다.<sup>58)</sup>

56) 위의 책, 138~139쪽.

57) 서대숙,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225쪽.

58) 1935년 이후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졸업생이 파견되었던 기록은 찾기 어렵다. 코민테른은 1933년 2월 공산대학 각과에 군사학을 신설하였고, 1934년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조직활동이 군사기밀의 조사와 병행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례로, 졸업생인 이돈호는 국내 잠입 이후 군수품공장을 중심으로 적색노

해방 직전 북한 지역에는 공산주의 색채를 띤 소규모의 청년단체들이 존재했다.<sup>59)</sup> 그러나 일제의 적극적인 검거 정책하에서 지하에서 결성되었던 청년단체들은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못했으며, 조직적으로 연계되지 않았다. 이러한 토양 위에 해방 직후 전개된 단일한 대중적 청년단체의 결성 정책은, 코민테른 제7차 대회에서 제기된 청년들의 반파시즘적 연합 정책의 연장이었다. ‘공산주의적 청년조직을 근로청년의 광범한 대중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1936년 3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서기국 회의의 결정은 코민테른 해체 후에도 유지되어, 소비에트화 과정이 전개되던 동구 유럽 국가들과 북한에 적용되었던 것이다.

북한 내에 대중적 청년단체의 결성 임무는 김일성 및 그와 함께 소련으로부터 입국한 빨치산 그룹, 그리고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출신으로 국내에 파견되었던 일부 공산주의자들이<sup>60)</sup> 주축이 되어 수행했다. 김일성과 함께 입국한 반일빨치산 그룹 중 일부는 청년 조직 준비를 목적으로 각 지방으로 파견되었다. 대중적 청년단체의 결성 준비는

---

동조합의 조직공작과 병행해 관련된 군사기밀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일제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요원들이 파견되기도 했는데 정수백, 김석규, 김려동, 양영순, 최원룡, 박청수 등이 그들이다. 우동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코민테른,” 599~607쪽.

- 59) 물론 기독교청년회, 백의청년동맹, 백호단 등 반공적 성향의 청년단체들도 존재했으며 해방 이후 공산주의 성향의 청년단체들 사이에 잦은 충돌이 있었다.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1: 건당·건국·건군의 역사』(서울: 선인, 2003), 196쪽. 그러나 본문에서는, 논지의 산만함을 지양하기 위해 해방 이후 북한 지역에서의 반공 활동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았다.
- 60) 해방 직후 소군정과 김일성의 정책에 적극 협력했던 김용범, 박정애, 주녕하 등은 1930년대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졸업 이후 평양과 진남포 등에 잠입해 활동했다. 우동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코민테른,” 580~593쪽. 이로 보아 1930년대 이후 입학해 졸업 이후 국내 잠입한 인물들이 해방 직후 소군정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내 당 조직 작업이 공식적으로 토의될 무렵인 1945년 10월 6일 평양에서 개최된 민청 준비회의로부터 시작되었다.<sup>61)</sup> 그러나 단일한 대중적 청년단체의 결성이라는 목표는, 당의 전위로서 공산주의 청년 조직을 지향했던 일부 토착 공산주의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sup>62)</sup> 1920년대로부터 코민테른과의 연계하에 공산주의 활동을 지속해오던 박현영, 오기섭 등 토착 공산주의자들은 투옥과 피신 등으로 인해 1930년대 중반 소련과의 연계가 단절되었고, 이에 따라 변화된 소련의 국제 공산주의 정책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소군정과의 긴밀한 연계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소군정의 지시를 따르던 김일성 및 일부 공산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하 분국) 창설 및 조직 작업과 병행해 공청을 단일한 대중적 청년단체로 개편할 것을 강력히 추진했다. 따라서 11월 15일 분국 제2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할 것이 논의되었고, 12월 분국 제 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공청을 민청으로 개조하는 방향에 대한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되었다. 11월 23일 발생한 신의주 학생 사건은, 소부르주아 계층이 다수였던 학생층의 구성을 노동자·빈농층으로 변화시킬 구실이 되었다. 곧이어 12월, 학생동맹을 민청에 통합할 것이 김일성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46년 1월 16일 평양에서 개최된 민주주의청년단체 대표자회의에서 ‘조선민주청년동맹북조선위원회’가 결성되었다.<sup>63)</sup>

61) 광채원, “조선민주청년동맹연구: 당적 지도의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70~71쪽.

62) 해방 직후 통일전선의 노선과 공청 해산 등을 두고 김일성과 갈등을 겪었던 토착 공산주의자 중 대표적 인물은 오기섭이었다. 우동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코민테른,” 580~593쪽.

63) 광채원, “조선민주청년동맹연구: 당적 지도의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69~84쪽.

결성 초기 민청 조직의 지도부 구성에는 배경이 다른 정치 그룹들로 구성되었던 당 지도부의 다원성이 반영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당 지도부 내의 갈등을 야기했고, 따라서 민청에 대한 당의 지도가 통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1948년 민청 제3차 대회를 계기로 사상교양 단체로서 민청의 성격이 규정되었다. 제3차 대회에서 개편된 간부 구성 역시 당 지도부의 다원성이 반영되었으나. 이 시기부터 민청은 당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기능했다. 민청에 대한 당의 영향력은 결성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당의 사회단체 간부 인사 권한 및 민청 간부의 당원 검직으로 통한 인적 지도, 맹원들을 대상으로 한 당적 사상의 교양, 당정책 수행을 위한 맹원 및 청년 동원, 사회단체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부서들의 통제 등을 통해 민청과 당과의 관계가 긴밀해졌다. 그러나 대중적 청년단체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민청의 공산주의적 성향은 1950년대 중반에야 공식화되기 시작했다.<sup>64)</sup>

## 5. 결론 및 향후 과제

1920년대로부터 소련은 코민테른을 통해 각국 공산당 및 조선의 공산주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일제의 적극적인 검거 활동으로 인해 국내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조건으로, 일부 지도급 공산주의자들은 해외에 근거를 두고 코민테른과의 연계하에 국내 공산주의 활동을 주도했다. 특히 코민테른과의 직접적 연계를 가졌던 고려공산청년회는

---

64) 위의 글, 69~116쪽.



국내 공산주의 청년조직 결성을 시도했으며, 박헌영등 조직의 중심 인물들은 이후 국내 공산주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레닌 집권 시기 코민테른의 공산주의청년동맹의 정책은 젊은 세대에 대한 공산주의 사상 교양과 공산주의청년동맹의 조직을 당의 예비군 및 조력자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공산주의청년동맹은 당이 근로자 대중조직을 인입하는 데 조력하는 조직으로 기능했다. 국내에 단일한 공산당 결성 작업이 지속적으로 실패하던 상태에서 공산주의 청년활동은 당 결성 시도와 함께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세계 사회주의화라는 코민테른의 기조는 레닌 사후 소련 수호 우선시 정책으로 변화했다. 특히 1935년 개최된 코민테른 제7차 대회는 파시즘에 대항한 광범한 반파시즘 인민전선의 형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반파시즘 투쟁을 목적으로 한 공산주의청년동맹과 사회주의청년동맹의 연합 결성이 제기되었고, 스페인, 라트비아 등에서 청년들의 반파시즘적 연합활동이 전개되었다. 1936년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서기국 회의는, 공산주의청년인터내셔널의 임무를 ‘공산주의적 청년조직을 근로청년의 광범한 대중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코민테른은 1943년 해체되었으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대중적 청년조직의 결성의 기조는 동구 유럽의 소비에트화 과정에, 그리고 해방 후 북한의 사회주의적 청년조직 결성 과정에 적용되었다.

코민테른과 직접적 연계를 가던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일제의 적극적인 검거활동으로 1930년대 이후 코민테른과의 연계가 단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1930년대 이후 소련에서 돌아온 공산대학 출신들이 입국 후 활동 중에 해방을 맞았고, 그중 일부가 소군정과 함께 입북한 김일성 등과 협력했다. 반파시즘적 대중단체를 표방한 코민테른의 1936년 청년동맹 정책은 김일성과 이들 공산주의자들의 주도로

실천되었다. 결성 초기부터 공산주의 성향을 드러내었던 소련의 콤포스몰과는 달리, 대중성을 표방한 민청은 공산주의 청년활동가들을 주축으로 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청년층에 개방되었다. 민청의 대중성은 이후 북한의 청년동맹이 모든 청년을 포괄하는 최대 규모의 사회단체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반면, 당과 민청의 직접적 지도 관계가 공식화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해방 후 3년간의 시기, 그리고 전쟁과 남북 분단을 중심으로 한 심도 깊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고, 이를 바탕으로 동시대 북한 연구는 물론, 한반도 현대사 연구가 발전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 체제의 형성과 두 개 국가로의 분단 배경을 해방으로부터 전쟁 시기 중심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자칫 국지적·단편적인 관점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산업화와 제국주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출현, 세계대전 속에서, 그리고 국제 진영의 분열 과정에서 한반도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근대적 정치 체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지와 같은 거시적 시각에서 남북한의 체제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면 보다 객관적이고도 주체적인 역사관과 정치관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성’과 ‘특수성’은, 이러한 국제 정치사의 맥락 속에서 남북한 모두의 역사에 남겨진 고유한 유전자들이기 때문이다.

■ 접수: 5월 12일 / 수정: 8월 4일 / 채택: 8월 4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조선로동당 歷史 簡略讀本』(평양: 북조선노동당출판사, 1948).

#### 2) 논문

그.게을기우-제스, “자국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의 루마니아 공산당,”

『1947년 9월 파란에서 진행된 몇개 공산당 대표들 정보회의』(외국문  
서적 출판부: 모스크바, 1948).

느.아.미하이로브, “전련맹 공산당(불셰위끼)은 공청의 조직자이며 지도자이  
다,” 『레닌-스탈린적 공청』(평양: 북조선민청중앙위원회 출판사, 1950).

므.질라스,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조직사업의 제문제(첨부보고),” 『1947년 9  
월 파란에서 진행된 몇개 공산당 대표들 정보회의』(외국문 서적 출판  
부: 모스크바, 1948).

브.이.레닌, “청년 동맹의 제 과업: 제3차 전로 로씨야 공산 청년 동맹 대회에  
서 진술한 연설(1920년 10월 2일),” 『청년에 관하여』(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6).

브.체르벤코브, “불가리아 로동당(공산주의자들)사업에 대하여,” 『1947년 9월  
파란에서 진행된 몇개 공산당 대표들 정보회의』(외국문 서적 출판부:  
모스크바, 1948).

블라지슬라브 고몰까(베슬라브), “파란 로동당 중앙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1947년 9월 파란에서 진행된 몇개 공산당 대표들 정보회의』(외국문  
서적 출판부: 모스크바, 1948).

스탈린, “레닌주의의 제 문제에 대하여(발췌): 전련맹 공산당(불셰위끼) 레닌  
그라드 단체에 드림,”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로동계급의 당』(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5).

쓰.뽀 류비모브, “브.이.레닌의 공청 제3차대회에서 진술한 ‘청년동맹의 과업’  
에 대하여,” 청년생활사, 『레닌-스탈린적 공청』(평양: 북조선민청중앙

위원회 출판사, 1950.4).

쓰.이.무라쓰브, “전련맹 레닌공산청년동맹 제8차대회에서의 이.브.쓰딸린의  
연설에 대하여,” 『레닌-쓰딸린적공청』(평양: 청년생활사, 1950.4).

아.야.부라쨌, “공청은-사회주의건설에서의 볼셰위끼당의 원조자이다,” 『레  
닌-쓰딸린적공청』(평양: 청년생활사, 1950.4).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국토통일원, 『解放前 政黨·社會團體研究 參考資料: 初期共產主義運動을 中心으로』.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I: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서울: 선인, 2003).

김성윤, 『코민테른과 세계혁명 I』(서울: 거름, 1986).

\_\_\_\_\_, 『코민테른과 세계혁명 II』(서울: 거름, 1986).

서대숙,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현대사연구회 옮김(서울: 이론과 실천, 1985).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

강만길·성대경,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서울: 창작과비평사, 1996).

박달, 『서광 2』(서울: 국민도서, 1989).

소련과학아카데미, 『현대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전』, 강종수 옮김(서울: 백산  
서당, 1989).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한홍구 옮  
김(서울: 돌베개, 1986).

\_\_\_\_\_,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한홍구 옮김(서울: 돌베개, 1986).

와다 하루끼(和田春樹),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이종석 옮김(서울: 창작과비  
평사, 1992).

\_\_\_\_\_, 『역사로서의 사회주의』, 고세현 옮김(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이정박현영전집편집위원회, 『이정박현영 전집 제1권 일제시기 저작편』(서울:  
역사비평사, 2004).

치르킨(Chirikin, V.)·유딘(Yu. Yudin)·지드코프(O. Zhidkov), 『맑스주의 국가와  
법 이론』, 송주명 옮김(서울: 도서출판 새날, 1990).

한무희, “중국공산당 출현의 역사적 배경,” 『중국공산당사』(서울: 침성대, 1990).

## 2) 논문

곽채원, “조선민주청년동맹연구: 당적 지도의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북한 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김수희, “소련 청소년단체의 정치사회화: 꿈소몰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Vol. 14, No. 1(1990).

김인덕, “조선공산당의 투쟁과 해산: 당대회를 중심으로,”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사』(서울: 한길사, 1992).

신주백,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조직방침,”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서울: 한길사, 1992).

우동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코민테른,”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서울: 한길사, 1992).

이종민, “당재건운동의 개시(1929~1931년),”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서울: 한길사, 1992).

이준식, “항일무장투쟁과 당건설운동,”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서울: 한길사, 1992).

임경석, “국내 공산주의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전술(1937~1945년),”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서울: 한길사, 1992).

지수걸, “함북 명천지역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1934~1937년),”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서울: 한길사, 1992).

최규진, “국내 통일전선운동과 코민테른,”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현황과 전망』(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북한연구방법론』(서울: 한울, 2003).

한무희, “중국공산당 출현의 역사적 배경,” 『중국공산당사』(서울: 침성대, 1990).

### 3) 기타 자료

한국근현대사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19949&cid=42958&categoryId=42958>(검색일: 2015년 5월 10일)].

김기협 전 교수의 블로그[<http://orunkim.ristory.com/535>(검색일: 2015년 6월 29일)].

## 3. 국외 자료

### 1) 단행본

Fisher, Jr., Ralph Talcott, *Pattern for Soviet Youth: A Study of the Congress of the KOMSOMOL: 1918~1954*(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Furst, Juliane, *Stalin's Last Generation: Soviet Post-War Youth and the Emergence of mature Socialism*(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Kornai, Já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Neumann, Matthias, *The Communist Youth Leagu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Soviet Union, 1917~1932*(Abingdon, Oxon: Routledge, 2011).

### 2) 논문

Lenin, V., "The Trade Union, the Present Situation and Trotsky's Mistakes (December 30, 1920)," *Lenin: Collected Works* 32(London: Progress Pub., 1981).

# A Study on the Background of “The Democratic Youth League” Formation in North Korea: Focused on the Soviet Effect

Kwak, Chaewon(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background of “The Democratic Youth League”(DYL) formation in North Korea, focused on the Soviet effect. DYL is a socialist youth league, one of the representative socialist organizations. Modern political system form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are important issues both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history context. In fact, as a result of international conflict, it still has not been declared ‘the end of the war,’ competing two political systems in Korean Peninsula. However, these issues, the North Korea’s case in particular, has been studied only limited areas as communist movement, independent movement and nationalism, and leadership oriented. Most of all, Soviet effect on that issue has not been deeply studied although it is the crucial factor that help understanding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formation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historical context. To a

better concrete understanding, this study focused on the background of the DYL's formation, expanding its time range back from the period of the 1920s when the Comintern had been organized by Soviet as a Communist International Movement.

Keywords: North Korea, socialist system, Democratic Youth League, Communist Youth movement, Comintern, Soviet effect, Soviet Union